‘시그널’ ‘슬기로운’ 기다렸던 시즌2가 온다

‘시그널’

‘슬기로운 감빵생활’

‘시그널2’ 작가·출연진 그대로 제작 논의
늦어도 내년 방송 목표로 대본 집필 중
‘슬기로운’ 새 시리즈 ‘슬기로운 의사생활’
의사·간호사·환자 이야기 올 가을 만날 듯
멜로보다 장르극이 시즌 거듭하기 좋아

큰 여운과 감동을 남긴 ‘웰메이드 드라마’에 대한 그리움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식지 않는다.

특히 2016년 모두를 무전 신호에 귀 기울이게 한 김원석 PD-김은희 작가 콤비의 tvN ‘시그널’과, 이듬해 교도소 내 인간 군상을 매력적으로 그려낸 신원호 PD의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여전히 수작 중의 수작으로 꼽힌다.

최근 이 두 작품의 후속 시즌 제작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팬들의 기대감도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시즌에서 박해영(이제훈 분)과 차수현(김혜수)이 현재의 이재한(조진웅)을 만나기 위해 굽고 굽은 산등성이 길을 지나는 엔딩으로 여운을 남긴 ‘시그널’은 작가와 출연진 그대로 시즌2 제작을 논의 중이다.

이제훈, 김혜수, 조진웅 주연 3인방이 그대로 출연하고 내년 2분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 방영을 목표로 김은희 작가가 대본을 집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작가는 앞서 여러 공식 석상에서 ‘시그널 2’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원석 PD의 합류는 아직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김 PD 역시 ‘시그널’을 통해 스타 PD로서의 입지를 굳힌 터라 방송가에서는 합류를 긍정적으로 본다.

‘시그널2’에 앞서 올해 ‘슬기로운’ 시리즈를 먼저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tvN은 아직 편성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방송가에서는 이르면 올가을 ‘슬기로운’ 새 시리즈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만날 것으로 전망한다.

2017년 방송한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교도소 내 다양한 캐릭터를 조명했다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제목처럼 병원을 배경으로 의사, 간호사, 환자 등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이야기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매회 허를 찌른 ‘반전 코드’와 특유의 유머도 기대해봄 직하다.

이 작품 역시 예능계에서 드라마계로 건너와 지각변동을 일으킨 신원호 PD-이우정 작가 콤비가 다시 한번 합심한다.

주연 배우로는 조정석, 유연석, 정경호 등이 물망에 오른다. 물론 연극계 등에서 늘 새로운 매력의 배우를 발굴한 신 PD기에 이번에도 이규형, 박호산 같은 ‘뉴 스타’가 탄생할지에도 눈길이 모인다.

이렇듯 시즌제 드라마의 성사, 성공 여부는 결국 제작진과 배우 캐스팅에 있다. 다만 최근에는 배우들도 시즌제 드라마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13일 “드라마도 영화 느낌의 영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배우들도 태도가 많이 오픈됐다”라며 “‘시그널’의 경우도 주연 배우들이 영화에서 주목받은 사람들인데, 그 배우들이 이어간다는 것은 ‘시그널’을 영화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검법남녀’, ‘추리의 여왕’, ‘동네변호사 조들호’, ‘보이스’, ‘구해줘’ 등 시즌제에 합류한 드라마들은 모두 장르극이기도 하다.

정 평론가는 “또 우리나라도 이제 장르극을 많이 하면서 시즌제 제작에 유리한 환경이 됐다. 아무래도 멜로보다는 문법과 캐릭터가 확실한 장르극이 시즌을 거듭해 나가기에 좋다”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송강호,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아시아 배우 첫 ‘엑설런스 어워드’

배우 송강호가 올해 제72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배우로는 처음으로 ‘엑설런스 어워드’(Excellence Award)를 받았다.

엑설런스 어워드는 2004년부터 독창적이고 뛰어난 재능으로 영화 세계를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한 배우에게 헌정하는 상으로 수잔 서랜던, 존 말코비치, 이자벨 위페르, 쥘리에트 비노슈, 에드워드 노턴, 이선 호크 등이 받았지만, 아시아 배우로는 송강호가 첫 수상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카르노의 팔렉스포 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송강호는 “전통과 유서가 깊은 아름다운 로카르노에서 의미 있고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특히 이 자리는 그동안 존경하는 세계 최고 배우들의 자취가 남겨져 있는 자리라 더욱 감격스럽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시상식에는 함께 영화제에 초청받은 봉준호 감독도 참석했다.

송강호는 “배우로서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 과분하게 영광스러운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 한국의 위대한 예술가들이 계신다. 이창동, 박찬욱, 김지운 감독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여기 이 자리까지 같이해준 나의 영원한 동지이자 친구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위대한 예술가 봉준호 감독님에게 이 트로피의 영광을 바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봉 감독도 “함께 한 네 편의 영화들 모두 송강호가 없었다면 완성할 수 없었던 영화들이라 너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송강호의 엑설런스 어워드 수상 전에는 릴리 힌스틴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배우 송강호에 대해 짧게 소개하고 그의 대표작인 ‘밀양’, ‘복수는 나의 것’, ‘반칙왕’, ‘괴물’, ‘설국열차’를 편집한 3분짜리 영상이 상영됐다.

송강호는 ‘어떻게 배우의 길을 걷게 됐는지’를 묻는 말에 “여러 영향이 있었겠지만 어렸을 때 스티브 맥퀸의 영화를 보고 많은 감흥을 받았고, 그때부터 배우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장 끌리는 장르에 대해서는 “희극, 비극, 코미디, 드라마 모든 것이 혼합된 것이 우리 삶의 단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르보다는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는 그런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광복절 기획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신입사관 구해령(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제2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40 팔도밥상 스페셜	00 저스티스(재)		00 애니갤러리 30 방학특집 안녕 자두야 언더 더 씨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신입사관 구해령(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테마스페셜
1	00 제16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에어로버 50 빠샤 메카드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쉿!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Q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신입사관 구해령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오늘밤 김제동	00 저스티스	05 살맛나는 세상	00 닥터탐정
11	35 UHD 숨터 40 광복절기획 KBS 스페셜	10 썸바이벌 1+1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5 KBS 뉴스 45 인간극장 스페셜(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TV는 사랑을 싣고(재)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로보카 폴리
07:15 꼬마버스 타요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페파 피그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몬카트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4
09:00 마샤와 곰
09:30 원더볼즈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초대석
13:00 지식채널e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4:30 꼬마버스 타요(재)
15: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5:45 출동! 슈퍼윙스(재)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4(재)
16:15 세미와 매직큐브
16:30 딩동댕 유치원1~2(재)
17:00 EBS 뉴스
17:20 명탐정 피트
17:30 페파 피그(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5
19:00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20:40 세계테마기행 〈중부 유럽 시골 유랑기 3부 꿈꾸는 동화 마을, 오스트리아〉
21:30 한국기행 〈앞마당에서 여름휴가2 3부〉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55 EBS 초대석
24:50 글로벌 특선다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4일(음 7월 14일 癸未)

子 36년생 무형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겠다. 48년생 중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60년생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이가 생길 수도 있다. 72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훌륭한 결과를 낳겠다. 84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성과가 더 크다. 행운의 숫자 : 58, 26

丑 37년생 과거의 잣대로 재려한다면 모순이다. 49년생 일시적인 감정에 따른다면 오판의 소지가 크다. 61년생 지금이라도 실행해야 한다. 73년생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느니라. 85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69, 16

寅 38년생 선길후흉 할 수이다. 50년생 길사의 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성국이다. 62년생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을 때 새로움을 볼 수 있다. 74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실함에 직면하게 된다. 86년생 근본 원인을 파헤쳐나가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81, 75

卯 39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51년생 발전적인 논의를 한 끝에 결실을 이뤄내는 판도이다. 63년생 관점을 달리해 보자. 75년생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각적으로 쉽게 현혹될 수 있느니라. 87년생 사소한 일에서부터 대사까지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6, 52

辰 40년생 모든 일에는 예외도 있다. 52년생 주변인들로부터 집중적인 주목을 받을 일이 있다. 64년생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으니 장담은 금물이다. 76년생 분명히 장고한 후에 결정할 일이다. 88년생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자연히 알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3, 42

巳 41년생 애매하다면 흉하니 흑백은 확실히 가리는 것이 낫다. 53년생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문제점이 속출할 것이다. 65년생 실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77년생 가능성이 희박하다. 89년생 처한 입장 때문에 원칙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78, 20

午 42년생 있어도 없는 것 같으리라. 54년생 이루어 놓고 말해도 늦지는 않으니 입을 꼭 다물어라. 66년생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 78년생 알면서도 방치한다는 것은 손실을 자초함을 알아야 한다. 90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모여 들겠다. 행운의 숫자 : 02, 30

未 43년생 다양한 요인이 주어질 것이니라. 55년생 잔손질이 여러 번 가야 마무리가 될 것이다. 67년생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보면 오해가 풀리리라. 79년생 오랫동안 갈구하여 왔던 힘의 기반이 생긴다. 91년생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취하자. 행운의 숫자 : 57, 98

申 44년생 상대를 존중해 준다면 무궁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56년생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것이 옳다. 68년생 굽은 것은 바로 펴자. 80년생 별 것이 아니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92년생 약간의 변동수가 보이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8, 92

酉 45년생 예기치 않은 정황까지 감안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57년생 느낌보다는 사실적 정황에 비중을 둬야 한다. 69년생 대범하게 넘겨 버리면 그만이다. 81년생 일단 정지한 후에 재시도하는 것이 낫겠다. 93년생 타인으로부터 우연히 듣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1, 05

戌 34년생 강력한 기운이 감돌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리라. 46년생 희소식을 접하는 행운이 있다. 58년생 다양함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이 절실하다. 70년생 기쁘게 해주는 이가 분명히 있다. 82년생 알뜰한 생활 자세가 견고한 삶의 기반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0, 57

亥 35년생 상대의 사정부터 잘 파악해 보라. 47년생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59년생 무심코 한 행위가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국세이다. 71년생 짜임새 있는 설계가 발전적인 판도를 기약한다. 83년생 거친 풍랑이 밀려오고 있으니 안전하게 대피하자. 행운의 숫자 : 52, 3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